

강기정 광주시장 “옛 신양파크호텔 활용 계획 재검토”



“시가 운영하는 생태호텔은 아닌 것 같다” “화살과 같은 한 달” 취임 30일 소회도 밝혀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무등산 기슭에 자리한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 “광주시가 운영하는 생태호텔(활용)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광주시가)호텔을 운영하려 했다면 매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원점 재검토나 계약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등록이 된 만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민·관·정 논의결과도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사업)검토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1981년 무등산 장원봉 인근 1만6000㎡에 3성급 호텔로 들어선 신양파크호텔은 국내·외 귀빈들이 주로 묵는 광주의 대표 호텔이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수익 악화로 영업을 중단했으며, 업체(컨소시엄) 측은 호텔부지를 포함해 2만5800㎡에 지하 3층 지상 4층 6개동 80여세대 규모의 고급 빌라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고, 공유화 여론이 높아지자 시는 답화문을 통해 부지 매입 방침을 확정·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로 민·관·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시에 부지를 매각하도록 사업자를 설득하는 한편 30여 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호텔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3일 대신현장보고회를 통해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3대 원칙과 활용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무등산 난개발을 막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광주의 진산(鎭山), 무등산을 지켜내기 위한

공유화 3대 원칙은 ▲시민 중심 무등산 공유화 거점 조성 ▲무등산권 생태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중심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였다.

민·관·정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와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등산 생태시민정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기존 호텔 건축물은 보존하되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생태·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을 ‘화살’에 비유하며 “인수 위 보고, 조직개편, 인사 마무리까지 딱 한 달이 걸렸다”며 “화살’은 빠르기(속도)보다 더 정확성(방향성)이 중요하다. 빠르기로는 잘한 것 같다.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

에게 물었다. 언론과 시민이 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시간이 유수처럼 흐른다고 하는데, 취임 뒤 한 달을 보냈다. 빠르기와 방향 둘 다 중요하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맞춰 방향은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가 나에게 묻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 시장은 “당면 과제는 예산사업의 확보다. 그 동안 이어왔던 노력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등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시·도 접경지에 1000만㎡ 규모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에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핵심 인재양성에 함께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 순천농협과 MOU 체결

1억5천만원 상당 입장권 구매 약정·강성채 조합장 명예 홍보대사 위촉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순천농협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조직위와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은 최근 정원박람회 홍보 및 입장권 판매, 관람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관규 조직위 이사장(순천시) 및 천제영 사무총장, 강성채 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MOU체결, 명예 홍보대사 위촉, 입장권 구매 약정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농협은 임직원 600명의 박람회 전 기간 입장권과 조합원 입장권 등 1억5천만 원 상당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으며, 전국 농협을 방문하여 박람회 홍보와 입장권 판촉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강성채 조합장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2023정원박람회 행사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노관규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을 실어준 순천농협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기관·단체·기업 등에서도 후원·협찬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는 같은 날 오전 순천시와 조직위 공무원 88명으로 구성된 ‘정원박람회 88홍보단’을 위촉하였으며, 향후 시민 홍보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정원박람회 붐 조성과 열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새 단장...체험거리 다채

체험수족관 개조해 상어·다닥피쉬 수조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박준택)은 여수에 자리한 해양수산과학관 체험수족관이 리모델링과 본관동 안전 등급 상향 공사를 마치고 2일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체험 수족관에는 파릇파릇한 벽면녹와 수조와 생동감 있는 체험이 가능한 다닥피쉬·잉어류 수조를 마련했다.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블랙팁상어, 화이트팁상어 등 상어 수조뿐만 아니라 직접 그린 그림을 스크린 화면에 띄워보는 라이브 스케치 등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디지털 체험 콘텐츠도 조성했다.

기존 체험 수족관은 수산생물을 직접 만져보는 수조로 구성된 관람객에게 사랑받았으나 시설물이 노후해 동물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 전시 콘텐츠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체험 수족관을 전면 새 단장했다.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부재, 건물 외벽 균열부, 지붕 방수층 등 보수·보



강 공사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로 3종 시설물에 해당하던 해양수산과학관 본관은 안전 등급이 상향될 예정이다.

입장 시간은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관람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해 관람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합동 안전캠페인

철도 이용 고객 600여명 대상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등 홍보

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달을 맞이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계대수송기간 열차이용객과 광주전남본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여수엑스포역에서 안전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관리를 홍보하였다.

따라서 안전한 열차승차차, 에스켈레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 철길무단횡단 금지 및 철길 건설목 일단정지, 철길 전차선 위험등 철도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고예방을 홍보하였다.

또한, 관내 주요 역에는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현수막을 게출하여 철도이용객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철도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대국민 안전의식 함양과 철도사고 예방,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양기관의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itie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급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	240,833원	125,531원	78,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12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